

2020년 4월 27일(월)

안창국 · 김윤경 선교사의 선교소식지 / 2020-02

Visionville

카카오톡 ID: visionville

드레스덴한인교회 <http://www.dresdenchurch.net>

✉ visionville@daum.net

봄날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봄꽃들도 화사하게 피었다가 이미 꽃잎을 흩날리며 떨어져 내린 꽃들도 많지만 코로나19(COVID-19)로 인해 봄을 봄처럼 느끼지 못한 분들이 아마 많을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봄철에 모두 평안하십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지난 번 선교소식에 독일과 유럽 연합(EU)은 코로나19 감염에 있어서 비교적 안정적이라고 인사를 드렸습니다만, 그 사이에 완전히 바뀐 상태입니다.

코로나19, 유럽은 Lockdown 중

유럽은 이탈리아에서부터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되면서 시작하여 이제는 전 유럽에 코로나19 감염자가 대폭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등에서는 연일 감염자가 수천 명씩 늘어가고 있고, 독일도 매일 수천 명씩 감염자가 늘어가다가 지난 주부터는 약간 누그러지는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를 비롯하여 Lockdown(봉쇄)가 실시되었고, 현재 독일도 3월 중순부터 행정명령이 내려져 Lockdown이 실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도시인 드레스덴(Dresden)은 체코와 폴란드 국경이 아주 가까이에 있는데 국경이 모두 폐쇄되어 물자 수송을 위한 화물차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국경을 넘나들 수 없고, 특별한 이유 없이 집 밖에 나가는 것을 금지하였습니다. 다행히 슈퍼마켓 등 생필품 구입을 위해 나가거나, 반려동물의 산책, 5명 이내의 가족끼리의 산책, 약국 방문, 은행 방문, 직장 근무를 위한 출퇴근 등의 일부 목적에 대해서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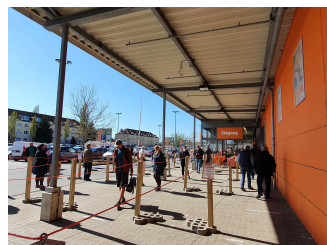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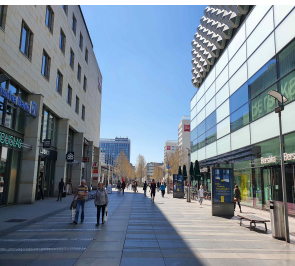
그렇지만 식당과 카페 등의 요식업이나 미장원, 박물관, 체육관, 도서관 등도 모두 문을 열지 못하도록 하였고, 많은 회사들도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있어서 외출을 하는 시민들은 눈에 띄게 줄어든 상태입니다. 물론 슈퍼마켓이나 약국, 은행 등은 문을 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코로나19로 인해 초창기에는 슈퍼마켓에서 화장지, 손소독제, 파스타 종류, 쌀 등의 사재기로 물건을 구입하기 어려웠습니다.

↗ 드레스덴의 가장 변화한 거리인데 아주 혼잡할 시간에 매우 한가한 거리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 건축자재 및 정원용품을 파는 상점에 들어가기 위해 모두 2m의 거리를 유지하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줄을 서서 한 명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모임 역시 모일 수 없도록 하였기에 제가 사는 작센(Sachsen, 영어 Saxony) 주에서는 2명까지만 모임이 가능하

고 3명 이상 모일 수 없도록 하였기에 예배나 성경공부 등의 모임을 가질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한 집에 같이 살고 있는 가족 외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집 방문 등도 하지 않도록 할 정도로 엄격한 행정명령이 내려졌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지난 4월 20일(월)부터는 약간 완화되어져서 모임은 여전히 세 명 이상 모이면 안 되지만, 예배에 한해서는 목사와 교회음악담당자(Kantor) 외에 15명까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800㎡ 이하의 상점도 문을 열 수 있도록 허용하여서 정원용품 판매점, 철물점(건축자재점) 등도 문을 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지만 4월 20일부터는 슈퍼마켓 등의 상점, 대중교통 이용 등 공공장소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실행하여 사람과 사람 사이에 2m 이상 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게 등에서도 단위면적 당 출입 인원을 제한하여 서로의 거리를 유지할 수도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식당과 카페는 문을 열 수 없는 상태이고 음식을 주문하여 집으로 가지고 가는 것은 허용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배달을 실시하는 음식점들이 예전보다 아주 약간 늘어난 상태입니다.

처음에는 화장지와 파스타 종류, 쌀, 손소독제 등의 사재기가 극심하여 어떤 상점에서도 화장지나 손소독제를 구입하기 어려웠지만, 지금은 아주 조금씩 물품이 구비되고 있는데, 아직도 일인당 하나 정도씩만 구입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주 조금씩 완화되어가는 제한들

다행히 독일은 Lockdown을 실시하면서 코로나19의 새로운 확진자 숫자가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유럽의 다른 나라에 비해 치명률도 낮은 편입니다. 의료 시설 또한 아직은 감당할만한 상태이기에 이탈리아의 코로나19 중증 환자들을 받아서 치료를 해줄 정도로 여유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황을 지켜보는 가운데 여러 제한들을 조금씩 완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행되고 있는 행정명령이 5월 3일(주일)까지 유효한데, 아마 이번 주 중으로 5월 4일 이후에 새롭게 변경될 사항들에 대해 독일 총리와 각 주(州) 총리들이 협의하여 발표할 것이라 예상됩니다.

아마 다음 주부터는 동물원이나 식물원도 개방을 하고, 상점들도 크기와 관계없이 영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예상되고, 일부 시설들도 개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식당과 카페는 조금 더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 듯 합니다. 또한 독일 사람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축구 경기를 비롯한 스포츠 경기와 오페라를 비롯한 음악회, 대규모로 열리는 박람회 등은 8월말까지 금지할 것이라고 합니다.

초, 중고등학교는 아직도 수업을 하지 않고 있고, 대학교는 학교에 따라 온라인수업으로 수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음악대학교는 수업을 하지 못하여 아마 이번 학기를 그냥 수업 없이 지나갈 수도 있을 것이라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다음 주부터 모일 수 있는 인원도 조정되리라 예상하는데, 코로나19의 초기 대응 때에 그러했던 것처럼 50명까지만, 혹은 100명까지만 모일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조금씩 모일 수

있는 제한인원을 늘려가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온라인예배와 제한된 사역

코로나19로 여러 가지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따라 교회들도 모임을 갖지 못하게 되어서 독일의 대부분의 한인교회들은 온라인예배로 전환을 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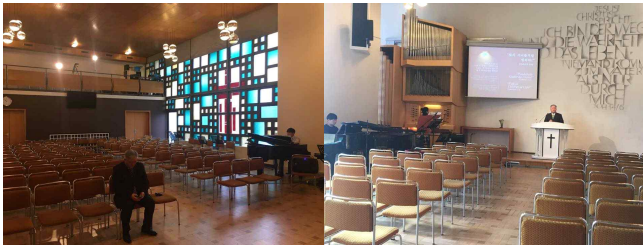
드레스덴한인교회도 3월 15일(주일)에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실시간으로 온라인 방송을 시작하였고, 2명까지만 모일 수 있게 된 3월 22일(주일)부터는 실시간 온라인예배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여 벌써 두 달 가까이 성도들과 대면하지 못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 온라인예배를 시작하기 바로 전, 강대상에서 바라본 교회 본당의 모습입니다.

↙ 온라인예배를 시작하기 전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 온라인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 가족과 오르간 반주자만 참석하여 예배를 드리고 방송으로 예배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2명까지만 모일 수 있지만, 한 집에 살고 있는 가족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우리 가족 4명이 온라인예배를 함께 섬겼습니다. 첫째 아들 하람이가 예배 피아노 반주를 맡아서 섬기고, 둘째 아들 예종이는 음향과 영상을 맡아서 유튜브를 통해 방송을 송출하는 것까지 담당을 했습니다. 제 아내는 예배를 위한 이러저러한 여러 준비를 맡아서 하였습니다.

드레스덴한인교회 유튜브 계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드레스덴한인교회”로 검색하셔도 됩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DnAtRjPHIVNDXqbwcz_hw/featured

교회당에 와서 함께 섬기지는 못해서 예배 전 준비 영상이나 여러 영상들을 편집하여 보내주는 지체들이 있어서 처음이라서 많이 서툴지만 보다 깔끔하게 온라인예배를 실시할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왼쪽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카카오톡의 라이브톡 기능을 이용하여 독일어 동시통역도 이루어지게 하여 독일인 성도들도 온라인예배에 참여하는 데에 문제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지난 4월 20일부터 15명의 참석자까지는 예배에 참여할 수 있다고 행정명령이 변경되어 4월 20일부터는 그동안 저와 제 아내만 함께 했던 아침기도회를 다시 성도들과 함께 모이기 시작하여 여러 성도들이 매일 아침에 기도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만도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의 얼굴을 오랫동안 볼 수 없고(다른 사람의 집을 방문하는 것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우리모임(Cell group)도 모일 수 없는 상태여서 교회의 사역은 아무래도 매우 제한적인 편입니다. 그래도 상담을 원하는 이들은 만나서 상담을 하고,

일대일 양육을 하는 경우에는 조심스럽게 만나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모임(Cell group)은 Zoom을 비롯한 여러 앱(App.)을 이용하여 온라인 영상으로 모임을 갖는 대안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영상으로라도 모임을 가지면서 서로 나눔을 갖는 것도 참 감사한 일입니다.

대학교들도 온라인으로 강좌를 열거나, 이번 학기의 수업이 언제 재개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자 유학생들은 한국으로 많이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유학생들은 바깥 출입에 제한된 상태에서 원룸에 혼자 지내는 것은 너무나 힘든 상황이니 가족들이 14일 자가격리의 과정이 있더라도 한국으로 들어오라고 하여 많이들 한국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새로운 학기가 시작될 9월 정도에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워킹홀리데이(Working Holiday) 비자로 들어와 있거나 교환학생 등으로 와 있던 학생들도 대부분 서둘러 한국으로 조기 귀국을 한 상태입니다.

지금 이곳에서 일하고 있는 성도들도 대부분 재택근무의 형태로 일을 하고 있고, 오페라극장과 오케스트라에서 일하는 음악인들은 8월말까지는 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간적 여유는 많아졌지만, 바깥에 자유롭게 나갈 수 있는 상태가 아니어서(물론 근처 산책은 가능합니다.) 이런 시간들을 규모 있게, 지혜롭게 보내도록 돕는 것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기대하건대 5월 둘째 주일부터는 모임 인원의 제한이 조금이라도 완화되어서 교회당에서의 예배와 온라인예배를 병행하다가 조만간에 다시 교회당에서 함께 공예배(公禮拜)를 제대로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독일과 유럽에서도 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가족, 드레스덴 식구들은 건강합니다

저희 부부와 두 아들은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 교회에 속한 지체들도 모두 코로나19 감염자 없이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청소년이 다니는 학교의 학생 중에 확진자가 나오기도 하고, 우리 교회의 미취학 아동이 다니는 유치원에서 확진자가 나오기도 하여 감염될 수 있는 위험이 있었고 그 중에는 고열과 두통, 기침 등으로 코로나19와 유사한 증상이 있어서 많은 염려를 했었는데, 검사결과 다행히 음성으로 나와서 독감 치료를 받고 회복되었고 그 이후에 별다른 징후가 없습니다.



한국에 다녀온 지체들은

14일간 자가격리를 하게 하고, 확진자가 나온 학교나 직장 등에 속한 이들도 14일간 자가격리를 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고,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기 전부터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손씻기와 손

소독제 사용을 권고하는 등의 관리를 하면서 비교적 안전하게 잘 지내고 있어서 감사한 일입니다.

예종이가 6월 22일에 입대합니다.

왼쪽 사진은 둘째 아들 예종이와 시내에 나가 피자를 사오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시내 한복판인데 매우 한가한 모습입니다.

이 사진에 나온 예종이가 6월 22일(월)에 논산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대를 합니다. 독일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면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할 수도 있기에 그 기간을 염두에 두고 입국하라는 병무청의 이메일을 받고 6월 4일(목)에 한국에 도착하는 비행기표를 예매하였습니다.

드레스덴공대에서 경영정보학을 공부하고 있었는데 잠깐 쉬고 한국에 들어가 군복무를 마친 후에 다시 돌아와서 공부를 마칠 계획입니다.

아빠나 엄마 없이 혼자 들어가서 자가격리를 해야 하고, 혼자서 육군훈련소로 들어가야 하기에 조금 안쓰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첫째 아들 하람이도 혼자 들어가서 육군훈련소에 들어갔었기에 그때도 마음이 좋지 않았는데, 둘째 아들도 그렇게 들어가니 안스럽지만, 예종이는 비교적 담당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군입대하는 연령에 비해 예종이가 조금 늦게 입대하는 것이지만, 지금은 1년 6개월만 복무를 하면 되니 가서 한국을 좀 더 잘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 아들도 군대에 가서 신앙생활도 잘 할 수 있었고 건강하게 전역했는데, 둘째 아들도 몸 건강하게 잘 지내고,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성숙하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레스덴한인교회 후임 결정을 위한 과정

지난 번 선교소식지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드레스덴한인교회의 사역을 내려놓기로 하고 교회에 이야기를 하여 후임 담임목사 청빙을 위한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래 4월말까지 사역을 하기로 했다가, 그 이후에 5월말, 그러다가 6월말까지 사역을 하기로 하는 등 변경을 해왔는데 다시 7월말까지 사역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교회에서 모임을 갖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청빙위원회나 제직회 등 결정을 위한 여러 모임들이 어려워진 이유로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7월말까지만 드레스덴한인교회에서 사역하는 것이 최종적인 결정이 될 것입니다.

제가 사임을 발표하고 제직들의 만류와 재고(再考)의 권유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제 아내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서 결정한 것이기에 제직들에게도 이해가 되도록 이야기를 하여 제 사임을 받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저를 청빙위원회의 자문으로 세워 제게 후임 담임목사를 추천해달라고 요청하여 신실한 한 분의 목사님을 추천하였고, 거의 두 달 정도의 과정을 통해 그 분을 후임 담임목사로 결정하였고, 어제(4월 26일) 제직회를 통해 만장일치로 청빙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이제 5월 24일(주일)에 모이기로 하는 임시 공동체회의에서 최종 인준만 되면 후임 담임목사 결정을 확정짓게 되고 행정적 처리만 하면 됩니다.

제가 드레스덴한인교회를 맡아서 사역을 한 것이 벌써 17년째입니다. 그 전에도 제게는 여러 굵직한 사역들이 있었지만, 가장 오랜 시간동안 섬겨왔던 사역입니다. 드레스덴과 저를 아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안창국 하면 드레스덴을 떠올렸고, 드레스덴 하면 안창국을 떠올릴 정도로 오랫동안 사역을 하면서 감사하게 이 사역을 잘 감당해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레스덴한인교회의 사역을 내려놓으면서 드레스덴한인교회를 맡을 후임 목사님에 대한 관심이 당연히 지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드레스덴한인교회에 오게 될 후임 목사님 결정에 대해 많이 기도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러한 시점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임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는 아주 적절하고 훌륭한 후임 목사님을 보여주셨고 지금까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종적인 결정까지 순조롭도록, 그리고 그 이후에 이취임예배를 드리는 상황까지 잘 진행되도록, 그리고 새로운 담임목사님과 드레스덴한인교회가 마음을 맞추어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7월 26일(주일)에 담임목사 이취임예배를 드리게 되고, 그 이후에 저는 드레스덴한인교회 사역을 완전히 내려놓게 됩니다. 코로나19로 여러 변수들이 많았지만, 이제는 이후의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기

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제 아내에게 주어진 그 다음 사역은?

많은 분들이 제게 “그럼, 그 다음에는 무슨 사역을 하게 되나요?”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제 아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와 제 아내는 마지막 사역의 기간(Term)에 대해서 자주 생각을 해왔습니다. 이제 사회적인 은퇴의 기간까지는 한 회기(Term)가 남았다고 여기고 더 늦기 전에 이 마지막 사역의 기간을 준비하고 시작하자고 생각했습니다. 올해가 2020년이니 느낌상으로도 남은 10년이라고 여겨도 좋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말하는 은퇴의 나이와 앞으로 남은 10년이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할 때에 지금 내려놓아야 할 때라고 주님께서 제 마음 속에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저는 “그럼, 저는 이제 어디서 어떤 사역을 하나요?”라고 물었지만, 주님께서 창세기를 묵상하는 가운데 다음이 어디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에 따라 내려놓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려놓기로 한 것입니다.

이제 7월말이면 드레스덴한인교회 사역을 내려놓고, 저희 부부는 다음 사역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드레스덴을 떠납니다. 여러 생각과 기도와 고민 중에 일단 드레스덴의 사역을 마치면 드레스덴에서 한 시간 반 정도 거리에 있는 라이프치히(Leipzig)로 이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라이프치히에는 라이프치히한인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권순태 목사님이 있는데, 평상시에도 아주 좋은 교제권을 가지고 지내고 있습니다. 감사하게 라이프치히한인교회의 건물 안에 있는 두 개의 방이 있는 집을 비교적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라이프치히로 이사를 하여 지내면서 그 다음 사역이 정해질 때까지 라이프치히에 머물려고 합니다.

라이프치히로 이사한 후에 곧바로 8월초에 한국을 방문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17년 동안 드레스덴에서 사역하면서 2년마다 안식일을 한 달 정도 가져왔지만, 한국을 방문하여 한 달 정도 가지는 시간은 안식이라는 말에는 걸맞지 않을 정도로 분주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3개월 정도 한국에 머물면서 그 다음 사역에 대해 생각하고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한국 방문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해지면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저희 부부가 어디에서 사역하게 되든, 그 사역에 따라 여러 가지가 달라지게 될 것이지만, 지금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 달라고 기도하는 중에 있고, 엘리야가 비가 오도록 기도할 때에 멀리서 구름 한 조각 정도를 보여주셨듯이 제게도 그러한 구름 한 조각 같은 것들을 보여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믿기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저희 가족을 가장 아름답게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신실하게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둘째 아들은 군에 입대하여 전역하면 다시 드레스덴에 와서 공부를 하게 될 것인데, 아마 그때에는 기숙사에 들어가려고 계획하고 있고, 첫째 아들은 현재 독일의 예나(Jena)에서 법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이미 기숙사를 얻어서 지내고 있기에 두 아들은 주어진 상황에 따라 지내는데 큰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저희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인도해주시도록 함께 두 손 모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당분간 전 세계가 힘들어 할 것이라고 합니다. 쉽게 코로나 팬데믹(Pandemic)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듣습니다. 한국은 코로나19 대응을 아주 잘해서 독일을 비롯하여 유럽 국가들에서도 모범 사례로 자

주 거론되고 있어서 자랑스럽고, 다행이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위험은 존재하는 시기이기에 모두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19는 여러 부분에서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을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보던 독일과 유럽인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니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예배로 드리고, 심지어 그 중요한 부활절에도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이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갖게 했습니다. 급격하게 온라인을 통한 여러 시스템이 삶 속에 깊이 다가오게 됨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때에 더욱 믿음이 견고해지고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시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드레스덴에서 안창국 / 김윤경 / 하람 / 예종 올림

기도제목

1.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교회공동체가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고, 각 성도들의 개인 신앙생활이 더욱 깊어지게 하옵소서.
2. 드레스덴한인교회가 독일 선교를 위한 귀한 도구로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3. 드레스덴한인교회의 담임목사 청빙의 과정이 순조롭고 아름답게 진행되어 5월 24일에 있을 임시 공동체회의를 통해 아름다운 결정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 수순도 잘 진행되게 하옵소서.
4. 동시통역을 위한 무선 송수신기가 마련되게 하옵소서(약 400만 원가량).
5. 코로나19로 어려운 중에도 교회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대일 양육을 통해 하나님의 일꾼이 계속하여 잘 세워지게 하옵소서.
6. 저와 제 아내가 남은 드레스덴한인교회 사역을 잘 마무리하게 하옵시고, 그 다음의 사역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잘 누리게 하옵소서.
7. 첫째 아들 하람이(예나대학교 법학)가 학교생활을 잘 하고, 좋은 결과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8. 6월 22일에 군입대를 하게 되는 둘째 아들 예종이가 잘 준비하여 건강한 군 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 선교헌금 후원

KEB 하나은행 181-04-01156-495

(예금주: 안창국)

우리은행 140-08-061218

(예금주: 안창국)

☎ 주소 및 연락처

Pastor Changgook Ahn

Bergmannstr. 19

01309 Dresden

Germany

☎ +49-351-4247-5050

휴대폰(독일) +49-176-3263-6125

휴대폰(한국) +82-10-7209-2779 (한국 방문 중에만 사용)

카카오톡 아이디 visionville

* 드레스덴한인교회의 홈페이지에 오시면 소식들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dresdenchurch.net>